



엄마·아빠 행동이 아이들의 교과서죠

서광 스님(미국 보스턴 서운사 주지)이 최근 자녀 교육법에 관한 책 <문제는 항상 부모에게 있다>(북폴리오)를 펴냈다. 이역만리 타향에서 10여 년간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이어온 경험과 심리학 박사의 이력을 살린 스님의 글에는 부모와 아이 모두가 함께 크는 가정의 지혜가 담겨있다. 책의 내용과 스님의 조언을 토대로 공부방법·인성교육 방법 등 자녀교육 전반에 대한 얘기를 엮어냈다. **강신재 기자**

■ 서광 스님에게 듣는 '자녀교육,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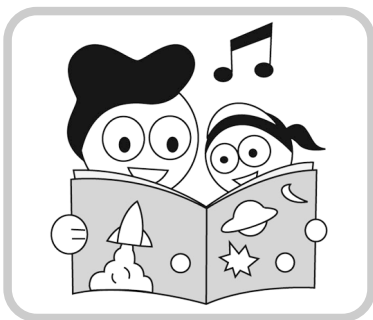
환경 조성 중요...차담등 통한 마음공부 지도

▽ 공부 시키는 방법?

강요로 이뤄지는 공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객관적으로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아이도 부모가 원한다는 사실 때문에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부모는 아이로 하여금 공부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멋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공부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며, 아이는 달라진다.

공부와 놀이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금물이다. 부모가 아이의 놀이에 함께 참여하면서 모르던 사실을 하나씩 배워가는 그 행위가 의미를 두는 것이 좋다. 차담을 나누며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 등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것을



부처님 가르침이나 마음수행과 연결시켜 지도해 주는 것이 '불교 놀이'의 한 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원인 및 결과 그리고 해결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면서 사상제와 팔정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일방적 전달 방식은 잘못...수시로 대화 필요

▽ 부모 자식간의 대화 요령은?

부모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아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에 만 급급한 것이 부모의 특성이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는 항상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게 되고, 부모와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이는 서서히 입을 닫기 시작한다.

문제가 일어난 후 그제서야 왜 그랬는지 얘기하라고 다그치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 문제가 일어난 후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변비나 설사로 고생할 대로



고생한 아이에게 뒤늦게 약을 들이미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화는 그때그때 이뤄져야 한다. 한창 자랄 나이의 아이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듣고 보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소화하고 이해하기 위한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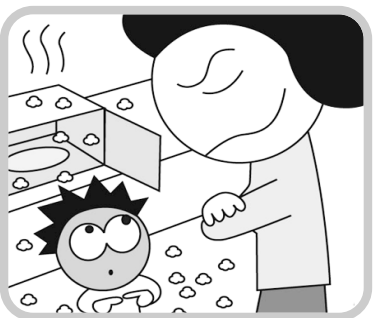
다그치기 보다 미숙한 부분 함께 풀어가야

▽ 아이의 잘못 어떻게 고치나?

아이가 전자기기 등을 잘못 사용해서 온통 더럽혀 놓았다면? 대부분의 부모가 성부터 내거나 "그냥 내가 하고 말지!"라며 아이들을 밀쳐내기가 일쑤다.

아이들은 모든 것이 미숙할 수밖에 없다. 전후 관계에 대한 파악없이 무작정 아이를 다그치기 전에, 아이의 문제해결 능력을 꼼꼼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숙하게나마 작업에 임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거쳐야. 그러면 아이들의 책임감, 합리적인 사고 능력 또한 증대된다.

부모가 무조건 나서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아이의 일을 떠맡아 시작했다가 힘이 부치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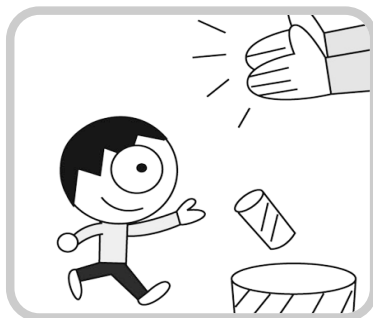
에게 문제 해결을 맡기는 부모가 많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미 부모에 대한 의존심이 자랄 대로 자라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이 약해져 있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일관성 없는 부모의 행동에 상처를 받기 쉽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다양한 매체 통해 '바람직한 행동' 인지시키길

▽ 아이의 인성교육 어떻게?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부모는 신문·잡지·책·영화 등의 매체를 이용해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각성시켜 주는 것이 좋다.

우선 아이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부모가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공공장소에서 휴지를 휴지통에 버린다는지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면 '엄마, 아빠는 너의 그런 모습이 자랑스럽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일곱 살이나 된 아이가 식당에서 큰 소리를 내며 투정을 부릴 때면 "그것이 나이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사실을 정



확히 지적해야 하는 것이다. 아이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같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일관성 있는 태도 및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행 방식 달라도 불법으로 통해요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21>

홍종덕 거사네

몸과 마음이 한데로 내몰리던 IMF시절, 홍종덕(64) 거사에게도 여지없이 찬 바람이 불어 닥쳤다. 잘나가던 대기업 영업이사직을 내어 놓은 홍 씨. 막막한 마음에 전국을 유람하며 절을 떠돌았지만, 절마당을 휘감던 푸른 안개도 능선을 타고 오르는 붉은 태양도 그제야 아무런 약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계사 앞마당 한 귀퉁이에서 '한글로 쓴 연화(의식문)'를 만나게 된다. "불교식 상례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사 불교대학에 등록해 홍 거사의 마음을 흐뭇하게 채워주었다.

"아내의 소리없는 내조가 없었더라면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 언제가 됐든 묵묵히 묵묵과 의복을 내어주는 아내는 망자를 직접 대하지 않고도 극락왕생 염원의 마음을 늘 저와 같았습니다."

염불봉사 외에도 조계사 문수법회장으로서 수많은 모임을 이끌고 있는 홍 거사의 든든한 지원자는 아내 전봉순(64) 보살이다. 전 보살은 그의 활동을



각자 다른 곳에서 불심의 싹을 틔운 홍종덕 거사 가족. 왼쪽이 부인 전봉순 보살, 가운데가 딸 경아양.

IMF때 불교식 상례 접한 후 '염불봉사' 시작 조계사 문수법회장 하며 아내·딸 불심 싹틔워

그리고 육신을 떨치는 그 순간에 염불로써 생의 편안을 기원할 수 있는 '염불봉사'라는 방편이 매료됐지요.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홍 씨는 3개월간의 장례의식 교육을 시작으로 염불봉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돌아가시는 분들은 약속도 없이 떠나는지라, 부름이 있는 날이면 그 어떤 약속도 모임도 제치고 장례현장을 찾았다. 환갑잔치가 있는 날에도 예외가 없어 60년 그의 행적을 이름모를 이의 빈소에서 곱씹을 정도였다.

진실한 마음은 또다른 진실 앞에서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일까. 그는 연고없는 이들의 시댁(망자를 위한 염불)을 무료로 집전하며 타종교인의 마음을 열었다. 염불봉사에 감동받은 한 망자의 가족은 상을 치른 후 가족 전원이 조계

말없이 지원하며 자신도 참선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용화사 시민선방에서 안거를 맞이한 것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기복신앙에 치우쳐 제 자리를 찾지 못했을 때 홍 거사는 전 보살의 손을 잡고 선방을 찾았고, 전 보살은 이제 부처님 법에 의지한 본격적인 수행의 계도에 안착했다.

부부가 뿌린 불심의 씨앗은 딸 경아(36) 씨의 가슴에도 싹을 틔웠다. 오랜 기간 불교를 찾았고, 전 보살은 이제 부처님 법에 의지한 본격적인 수행의 계도에 안착했다.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지만, 우리 가족은 부처님 법으로 통합니다." **강신재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蓼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가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나병, 알콜중독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우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지능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제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蓼 長腦로 다스려 세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
며 山蓼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錄 函索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들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蓼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니?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건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검정(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蓼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언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가 내 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지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시키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1334-9490, 334-9491 야간 : 0311706-3060